

성적 아닌 인기순... 김서현 최다 득표

프로야구 올스타 팬 투표 1차 집계
삼성, 포지션 1위 선수 6명으로 1위
롯데·한화가 각 5명씩 이름 올려
두산·키움·kt 1위 선수 아예 없어
"성적 기준으로 뽑아야" 개선론 많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2025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1차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한화 김서현이 9회에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2025시즌
올스타 팬 투표 1차 중
간 집계 결과가 9일 나
왔다.



KBO가 발표한 올스타
전 팬 투표 1차 집계 결과를 보면 총투표
수 137만2012표 가운데 한화 이글스 마무
리 투수 김서현이 69만 표를 넘겨 얻어 최
다 득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포지션 1위 선수를 구단별로 따져보
면 삼성 라이온즈가 6명,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가 5명씩을 기록 중이다.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 kt wiz는
1차 중간 집계에서는 1위 선수가 한 명도
없다.

올스타 투표 때마다 팬들 사이에서 벌어
지는 논쟁이 '올스타전 팬 투표는 시즌 성
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인기
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다.

특히 특정 팀이 부문별 올스타를 사실상
독식하는 결과가 나오는 시즌에는 '아무
리 인기도 좋지만, 성적에 어느 정도 기반
한 투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이번 1차 중간 집계 결과와 포지션별 후
보 선수들의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를 비교해보니 드림 올스타의 삼
성과 롯데가 시즌 개인 기록과는 별개로
다수의 1위 선수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
났다.

WAR은 해당 선수가 빠졌을 때 그를 대
체한 선수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승리를
팀에 안기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다.

예를 들어 WAR이 4인 선수는 그 선수가
빠졌을 때와 비교해 팀이 4승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드림 올스타에서 9일 기준 포지션별
WAR 1위 선수들을 살펴보면 소형준(kt),
이로운(SSG 랜더스), 박영현(kt), 양의지
(두산), 르윈 디아즈(삼성), 고승민(롯데),
최정(SSG), 전민재(롯데), 김성윤(삼성),

빅터 레이에스(롯데), 멜 로하스 주니어
(kt), 안현민(kt)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팬 투표 1차 집계
에서도 1위(외야의 경우 3위까지)를 한 선
수는 디아즈, 최정, 전민재 3명이 전부다.

선발 투수는 WAR 1위 소형준 대신 원태
인(삼성)이 1위에 올랐고, 중간은 이로운
대신 정철원(롯데), 마무리는 박영현 대신
김원중(롯데)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포수 강민호(삼성), 2루수 류지혁(삼
성), 외야 윤동희(롯데), 구자욱, 김지찬(이
상 삼성), 지명타자 전주우(롯데) 등 유독
삼성과 롯데 선수들이 WAR에 비해 표심
에서 강세를 보였다.

WAR 기준 포지션별 1위가 삼성은 2명
이었지만 실제 투표 1위는 6명으로 늘었
고, 롯데는 WAR 포지션별 1위 3명에서 투

표 1위 5명으로 증가했다.

kt 박영현은 마무리 투수 후보 5명 가운
데 가장 높은 WAR을 기록 중이지만 팬 투
표에서는 4위와도 표 차이가 꽤 많이 나
는 5위에 머무는 가장 심한 불균형을 보였다.

반면 강민호는 포수 후보 5명 중 WAR 4
위지만 팬 투표에서는 2위 선수의 2배 이
상 득표를 기록했고, 외야수 부문 구자욱
은 후보 12명 중 WAR 9위지만 팬 투표 2
위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나눔 올스타는 드림 올스타와 비교하면
WAR과 팬심의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포지션별 WAR 1위는 코디 폰세(한화),
손주환(NC 다이노스), 김서현(한화), 박
동원, 오스틴 던(이상 LG 트윈스), 박민우
(NC 다이노스), 문보경(LG), 박찬호(KIA
타이거즈), 권희동(NC), 에스테반 플로리

얼, 이진영(이상 한화), 최형우(KIA)다.

이 가운데 팬 투표 1위가 바뀐 부문은
중간 투수 박상원(한화), 3루수 김도영
(KIA), 지명타자 문현빈(한화)이고 외야
는 권희동과 이진영 대신 박건우(NC)와
박해민(LG)이 들어갔다.

다만 이번 시즌 WAR 3.94로 KBO리그
전체 1위인 LG 3루수 문보경은 3루수 부
문 후보 5명 가운데 득표수로는 송성문
(키움), 노시환(한화)에도 밀려 4위인 점
이 눈에 띈다. 2025 KBO 올스타전 팬 투표는
22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팬 투표 70%
와 선수단 투표 30% 결과를 합산해 최종
베스트12 명단이 정해진다.

올해 올스타전은 내달 12일 대전 한화생
명 볼파크에서 열린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좌완 투수에 2루타 쳤는데... 또 좌완 등판에 김혜성 교체

샌디에이고전 활약에도 감독에 찬밥 수도

‘혜성 특급’ 김
혜성(로스앤젤레
스 다저스 사진)이



낮은 슬라이더 초구에 헛스유했한 김혜
성은 2구째 몸쪽 시속 143.1km 슬라이더
를 놓치지 않았다.
절묘하게 당겨 쳐 오른쪽 담장 구석으
로 타구를 보냈다.

김혜성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
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최근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0.414에서 0.410(61
타수 25안타)으로 소폭 떨어졌다.

첫 타석에선 범타로 물러났다.

김혜성은 2-2로 맞선 2회초 주자 없는
1사에서 샌디에이고 오른손 선발 닉 피
에타를 만났다.

그는 3볼 1스트라이크에서 5
구째 높은 직구를 쳐 유
격수 뜬 공으로 아
웃했다.

두 번째
타석도 아쉬웠

다. 다저스는 2-3

으로 뒤진 3회초 공격에

서 3점을 뽑아내며 5-3으로 역

전했고, 김혜성은 2사 2, 3루

기회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김혜성은 볼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

서 피에타의 한가운데 물린 커브를 노렸

으나 헛스유했으며 물러났다.

김혜성은 하늘을 향해 탄식한 뒤 헬멧

을 치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안타는 5-6으로 뒤진 5회초 공격 때 나
왔다.

샌디에이고는 5회초 수비에서 피에타

를 마운드에서 내리고 일본 출신 왼손

불펜 마쓰이 유키를 투입했다.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평소

왼손 투수가 나왔을 때 왼손 타자인 김

혜성을 내보내지 않거나 교체하기 일쑤

였으나 이때는 달랐다.

김혜성은 2사 2루에서 교체 없이 마쓰
이를 상대했다.

낮은 슬라이더 초구에 헛스유했한 김혜
성은 2구째 몸쪽 시속 143.1km 슬라이더
를 놓치지 않았다.

절묘하게 당겨 쳐 오른쪽 담장 구석으
로 타구를 보냈다.

김혜성은 손살같이 내달렸고, 2루에

안착한 뒤 두 손을 흔드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후 김혜성은 후속 타자 오타니 쇼

헤이가 1루 땅볼을 치면서 득점하진

못했다.

김혜성이 왼손 투수를 상대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장

타를 때렸으나

다저스 벤치는

여전히 김혜성을 신

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김혜성은

6-6으로 맞선

8회초 1사에

서 타석에 들어

섰고, 샌디에이고

는 오른손 불펜 제러

마이아 에스트라다 대신

왼손 불펜 아드리안 모레

훈을 내세웠다.

그러자 로버츠 감독은 김혜

성을 오른손 타자 엔리케 에르

난데스로 교체했다.

결과적으로 로버츠 감독의 플래툰 시

스템(상대 투수 좌·우 유형에 따라 선발

출전할 좌·우 타자를 골라 기용하는 방

식)은 실패했다.

에르난데스는 무기력하게 헛스유했 삼진

으로 물러났고, 다저스는 8회초 공격에

서 득점하지 못했다.

정규이닝에서 6-6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연장 승부를 펼쳤고, 다저

스는 10회초 승부차기에서 2점을 뽑아내

며 8-7로 승리했다.

야구에서 왼손 타자는 왼손 투수에게

약하고 오른손 타자는 오른손 투수에

약하다는 게 정설이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